



6.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우리에게는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선은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며 반성을 하지 않으면 인식될 수 없지만, 악의 현존은 우리에게 인식을 강요한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은 공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

< 보기 >

- ㄱ. 사후적 보상의 책임과 사전적 예방의 책임 모두 필요하다.
- ㄴ.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로부터 책임 질 수 있는 능력도 도출된다.
- ㄷ. 선에 대한 절대적 인식불가능성이 악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 ㄹ. 책임의 본질적 속성 중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 공포를 활용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그대 무리 중 정직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양을 몰래 훔친 것을 증언했지만, 우리 무리 중 정직한 사람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그 사실을 숨겼네. 정직은 그 속에 있다네.
- 자식은 부모가 부르시면 빨리 대답하여 늦지 않도록 한다. 부모가 연세 드시면 늦게 귀가지지 않는다. 부모가 병환 중이시면 자식은 얼굴을 환하게 하지 않고, 웃되 잇몸을 보이는데 이르지 않으며, 노하되 꾸짖는 데 이르지 않는다.

- ① 효는 장유유서(長幼有序)를 최우선으로 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 ② 효는 예(禮)를 바탕으로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의미한다.
- ③ 효와 자(慈)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쌍무적 성격의 관계임을 의미한다.
- ④ 효의 완성은 부모님에 대한 물질적 대우인 봉양(奉養)을 통해 완성된다.
- ⑤ 효는 의(義)를 바탕으로 부모의 잘못을 질책하며 바로잡는 것이다.

8.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고 있는 정의감을 드러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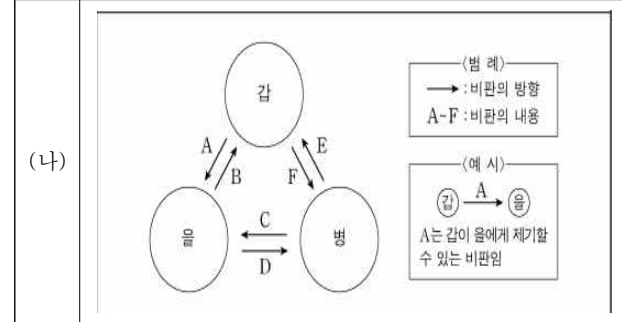
< 보기 >

- ㄱ.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심각한 부정의는 존재한다.
- ㄴ.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따르는 행위는 합법이 아닌 위법이다.
- ㄷ. 정의의 원칙을 어기는 모든 법과 정책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 ㄹ. 시민불복종은 민주헌법의 의도를 위해 법의 경계선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공정한 절차는 그것이 실제로 진실하게 수행되었을 경우에만 그 결과에 공정성을 부여하게 된다. 공정한 기회의 원칙이 갖는 역할은 협동 체제가 순수 절차적 정의의 체제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 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자아를 실현하는 활동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강제적인 활동이 된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를 없애고 공동 생산, 공동 분배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한다.
- 병: 분배에서 옳음은 동등한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하는 것이다. 분배에서 옳음은 일종의 비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례는 비율과 균등성을 의미하며 기하학적 비례에 해당한다.



- ① A: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만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재화분배가 부정의함을 간과한다.
- ② B: 재화의 균등한 분배가 분배정의 실현임을 간과한다.
- ③ F: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도 분배 정의가 실현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A,C: 사적 소유권의 폐지 없이 분배 정의가 이뤄 질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C,E: 정형화된 분배적 기준에 따라 재화가 분배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